

M-TREE 9th
NEWS LETTER

my thing

Focus on my thing,
M-Tree 장학금이 응원해준 꿈

contents |

002 미디어대학 소식

004 M-TREE 장학금

006 장학생 소감문



미디어대학 소식



01 미디어대학 출범식 성료

2025년 3월 27일 고려대 미디어관 1층 로비에서 미디어대학 출범식이 열렸다. 고려대 미디어대학은 1965년 신문방송학과로 창과한 이후, 언론학부, 미디어학부를 거쳐 올해 3월부터 미디어대학으로 승격됐다. 미디어대학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미디어 전문 대학으로, 이번 학기 신설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학부를 포함 외국인 학생이 40%를 확보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미디어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미디어대학 출범으로 단순 학제 개편을 넘어 미디어 교육 혁신을 선도할 세계적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학부와 글로벌엔터테인먼트학부는 공동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과 간 유사 교과목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크로스리스팅(cross-listing)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주어천(周漁川, 미디어대 미디어 24) 씨는 “기존 강의가 저널리즘, 영상 제작에만 국한돼 있어 아쉬웠다”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학부 신설과 미디어대학 출범으로 다양한 수업이 열리고 학교의 지원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미디어대학장은 “학생들이 변화를 좇기보다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가 되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글 | 김정린 기자
joring@
출처 : 고대신문



02 김성철 교수, 미디어대학 설립 60주년 기념 1억 원 기부

미디어대학 김성철 교수가 미디어대학 설립 60주년을 축하하며 1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3월 14일(금) 오전 10시 본관 총장실에서 김성철 교수와 ‘학교발전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기부식에서 김성철 교수는 “미디어대학 설립 60주년을 맞아 학교를 위해서 작은 마음이라도 보탬이 있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쾌척해 주신 기금은 미디어대학 6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라고 화답했다.



QR 코드를 클릭하시면 미디어학부생들이 제작한 학부 소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a & Communication

이승진 -- 미디어학부에서 보낸 4년 동안 한 학기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학내 방송국 활동부터 실습 수업까지, 언제나 제 손에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기록하고 전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끝까지 카메라를
놓치 않도록.

이승진



승진의 카메라

Mail | jinlee_28@naver.com

단순한 꾸준함을 넘어, 목소리를 발견하고 이를 깊이 있게 표현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드라마 프로덕션' 강의에서 단편 드라마 두 편을 제작하며 다큐멘터리에도 필요한 스토리텔링과 현장 연출 역량을 함께 쌓았습니다. M-Tree 장학금 덕분에 금전적인 제약 없이 창작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를 캐스팅하고, 장소를 대관하며, 장비를 대여하는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지금까지처럼 성실하게 카메라를 쥔 채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M-Tree 장학금 덕분이었습니다. 미디어학부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성실히 노력하며 더 나은 제작자로 성장하겠습니다.





표지형 -- 미디어학부 22학번으로, KU-UGA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조지아 대학교에서 광고와 PR을 전공 중입니다. 게임과 서브컬처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를 꾸준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등 콘텐츠 제작도 즐깁니다.

Beyond
The Screen

표지형

게임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게임을 통해 가보지 못한 공간을 탐험하고, 여러 선택과 서사를 경험하며 이야기의 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게임처럼, 저 또한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습니다. M-Tree 장학금 역시 저의 세계를 한 단계 넓혀주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해외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회를 받은 만큼, 저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지형의 게임기

이서빈 -- 미디어학부 21학번으로 지금은 PM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탐조를 위해 큰 맘먹고 장만한 쌍안경은 새나 공연을 볼 때 사용합니다. 쌍안경을 통해 대상과 현상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Always
Be Awake.

이서빈



서빈의 쌍안경

Mail | jasmineseobin@gmail.com
LinkedIn | www.linkedin.com/in/seobin-lee-a87b40252

대학생활 내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헤맸고 사실 아직도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가슴뛰는 일의 형태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쌍안경으로 대상을 깊게 관찰하듯 제 앞에 주어진, 혹은 주어질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과 협업하며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드는 PM이 되고 싶습니다. PM의 기초 역량인 분석력을 기르기 위해 데이터 분석 학습에 M-TREE 장학금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M-TREE를 통해 더 큰 나무가 되어 다음 기수 분들도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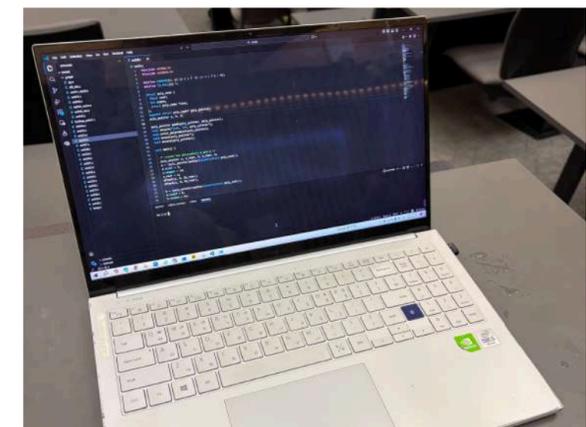


신명경 -- 주인을 잘못 만나 몇 년째 흑사당하고 있는 제 컴퓨터는 고등학생 때부터 함께해 온 오랜 친구입니다. 이 녀석과 함께라면 온 세상과 연결될 수 있고, 어쩌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좋은 기술과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설레게 합니다.

while dream:
stay_true()

신명경

본전공으로 미디어학을, 융합전공으로 인공지능을 공부 중인 저는 현재 교환학생으로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에서 Computer Science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인공지능 문화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역만리에서 되려 한국에 대한 정이 깊어진 지금, 특히 한국의 색감과 문화를 담은 영상 기술을 개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넓은 세계에서 시야를 넓히고, 나만의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요즘의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열어주신 M-TREE 장학금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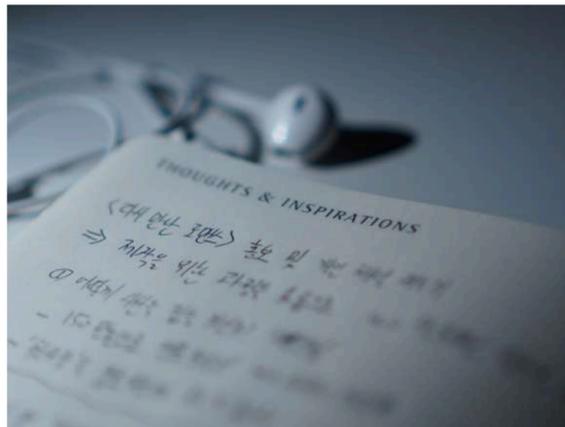
명경의 컴퓨터

Mail | shin031112@gmail.com
LinkedIn | [linkedin.com/in/myungkyung-shin-993a22339](https://www.linkedin.com/in/myungkyung-shin-993a22339)

유인호 -- 미디어학부 22학번으로 학교에 다니며 다양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는 늘 기록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스치면 잡서장을 꺼내,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 두려 글을 써내려 갑니다.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그저 지나가는 생각, 속마음, 보고 느낀 순간의 감상. 그렇게 남긴 글씨들이 콘텐츠의 영감이 되곤 합니다.

Always go
with your passions

유인호



인호의 잡서장

M-Tree 장학금은 제 잡서장 위의 조각들을 현실로 끌고 올 수 있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생각만 하다가 현실적인 조건 앞에 무너져버렸던 이야기들, 영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던 기획들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분명 학생이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업적 목적 없이, 그저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가는 과정. 그 자유로움을 더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이 순간을 영양 삼아, 언젠가 제 이름이 프로그램의 제목보다 널리 알려지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때까지 도전하며,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Mail | dbdlsg0313@naver.com
Tel | 010-2765-4380

